

2030년 K-그리드 150억弗 수출 시대 연다... 민관 원팀 총력

‘K-그리드 수출 얼라이언스’ 출범
팀코리아 브랜드로 통합패키지 수출
글로벌 에너지 시장 5% 점유율 도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일 “전력망 산업의 해외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K-그리드를 원전에 이은 제2의 에너지 수출 동력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제32차 에너지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 세계적 인문·에너지로의 전환 추세로 인해 원전·재생·수소 등 발전용량 확대와 더불어 전력망에 대한 투자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리드 산업은 전선류, 변압기, 차단기 등 전력기자재를 비롯해, ESS, 각종 솔루션 등을 포괄한다. 최근 전 세계 주요국들의 탄소중립 이행과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전력수요 급증으로 향후 노후망 교체와 신규망 구축 수요가 급격히 확대될 전망이다. 시장조사기관인 블룸버그(BNEF)에 따르면 세계 그리드 투자액은 2020년 2350억달러에서 2030년 3720억달러, 2050년 6360억달러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일 오전 경기 LG전자 평택칠러공장을 방문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시장과 냉각 공조기 현황 및 전망 등을 논의하고 있다. /뉴시스

특히 그리드 구축은 약 10년의 장기 프로젝트로,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고 구축 이후 유지보수 등이 연계돼 원전 수출과 같이 국내기업들의 동반진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도 기대된다.

정부는 우리나라 그리드 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발전소와 그리드를 아우르는 통합 패키지 수출 모델을 확립하고, 주요국 첨단산업 대규모 전력수요를 중점 공략할 계획이다.

또 재생에너지 등 주요 발전지역과 대규모 전력수요처 간의 지리적 불일치로 수요가 급증하는 장거리 송전망(HVDC) 구축 시장 선점도 지원해 나

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날 그리드 수출을 위한 민관합동 ‘K-그리드 수출 얼라이언스’를 발족하고, ‘K-그리드 글로벌 진출 전략’을 발표했다. 얼라이언스에는 26개 기업·기관이 참여한다.

얼라이언스는 전력공기업들과 설계·구매·시공 전문기업(EPC), 그리드 기업 등이 부문별 강점을 결합, ‘팀코리아’ 브랜드로 발전-송배전-보조서비스 등 전략산업 전 밸류체인 수출 추진을 목적으로 결성됐다. 얼라이언스 내부에 2개 분과(사업협력·수출지원)를 구성, 해외시장 정보 공유, 진출전

략 논의, 기업으로 해소 등을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전력공기업과 대기업은 기자재 등 수요자이자 디벨로퍼로서 얼라이언스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EPC는 국산 기자재 활용, 전기연·무보·코트라 등은 시험인증과 금융·마케팅 등 수출 지원에 힘을 예정이다. 주요 법무법인도 동참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시 법률이슈 대응을 지원한다.

안 장관은 “우리 기업들은 발전소 구축뿐만 아니라 제조·시공·운영에도 세계적인 강점을 보유하고 있어 발전소-그리드 통합 패키지 수출은 우리나라의 새로운 에너지 수출모델이 될 것”이라며 “2030년까지 그리드 수출 150억달러, 세계시장 점유율 5% 이상 달성을 목표로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에너지위원회에서는 ‘AI를 활용한 에너지 시스템 전환 정책방향’, ‘제2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기본계획’도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다. 이를 위해 ▲한국형 그린버튼 확산 ▲AI 전력운영시스템 실증 ▲통합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등 3대 시범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등 안정적 전력 공급과 다양한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aT 찾아가는 수출 컨설팅 K-푸드 글로벌 도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일 충남 홍성군청에서 ‘찾아가는 K-푸드 수출 현장 컨설팅과 실거래 창출을 위한 구매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수출 컨설팅 지원사업은 전문가를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내수 기업의 수출 기업화를 돕는다. 수출업체들이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aT는 특히 올해 지역의 우수 K-푸드 기업들이 사업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경북, 전북, 경남 등에서 ‘찾아가는 수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충남 지역에서는 최초로 진행된 이번 ‘찾아가는 수출 컨설팅’에는 홍성·예산의 우수 K-푸드 기업 30개사가 참여했다. aT는 참여기업들이 현장 컨설팅뿐 아니라 국내 대표 단체급식 기업인 삼성웰스토리나 구매상담회도 주선하며 실거래 창출에 공을 들였다.

아울러, 신제품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농촌진흥청과의 현장 상담 등 다채로운 상담 기회를 제공해 참여기업들의 호평을 받았다.

aT는 대한민국의 식품 영토확장을 위해 앞으로도 전국 각 지역의 우수 K-푸드 기업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수출 컨설팅’을 활발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 대량수요처 구매상담회 동반 개최 등 사업 구성을 다양화해 참여기업들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정인교 “세계시장 수출 선봉장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

(통상교섭본부장)

산업부, ‘세계시장 점검회의’ 개최
대구·창원·대전·청주, 수출 설명회

산업통상자원부가 전 세계 상무관·무역관들에게 올해 마지막 한달 수출 확대에 총력 경주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서 ‘2024년 세계시장 점검회의’를 개최, 내년 세계 수출 시장 상황을 점검했다.

정 본부장은 회의에 참석한 주요국 상무관과 코트라 129개 무역관을 총괄하는 10개 해외지역본부에 “올해 남은 기간도 긴장을 유지하며 수출지원에 총력 경주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어려운 대외환경과 자동차 부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코리안호텔에서 중국 무역·투자기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품업체 파업, 기상악화발 물류 차질 등 예상치 못한 부정적 요인에도 우리 수출은 14개월 연속 플러스, 18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전 세계 상무관과 코트라 무역관장은 세계 시장 수출 선봉장이라는 자세로 수출확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코트라 해외지역본부는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수출 성약으로 이어지도록 집중 관리하는 한편, 연말 소비 수요에 맞춰 온라인 마켓 입점지원을 강화하는 등 연말까지 계획된 수출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한다.

주요 수출국 상무관은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주요국 동향 ▲내수 부양 정책 ▲자국 내 산업육성 정책 동향을 공유했고, 코트라는 전 세계 무역관이 수집한 내년 시

장 전망과 진출전략을 공유했다.

정 본부장은 “미국 신정부의 정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위기요인에 대비하겠다”며 “우리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한미 관계는 상호공급망이 밀접하게 연계된 첨단산업 경제 동맹으로 발전했다. 이를 바탕으로 상호호혜적인 협력과 우리기업의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코트라는 이날 회의를 토대로 4일 ‘세계시장 진출전략 설명회’를 개최, 우리 수출기업 500여개사에 내년 세계시장 전망과 진출 전략을 공유하고, 이어 대구, 창원, 대전, 청주 4개 지방에서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지속가능한 국립공원 탐방 환경 구축

환경부, 생태문화·접근성 강화

환경부는 모든 국민이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탐방 기반 시설을 꾸준히 확충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한층 더 향상된 탐방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경관이 뛰어나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과 관리가 중요한 지역이다. 최근 여가 문화가 변화함에 따라 국립공원의 우수한 생태문화자원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전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요구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환경부는 탐방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탐방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우선, 2022년부터 북한산을 포함한 14개 국립공원에 무장애 탐방로 12곳과 무장애 야영시설 181동을 새롭게 조성했다.

국민이 보다 쾌적하게 국립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시작된 노후시설 전면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종=김대환 기자

울산 산단, 화학사고 공동방재체계 가동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개원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오는 4일 민관 합동으로 울산 남구 울산콤플렉스에서 울산 산단 내에 화학사고 공동방재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유·누출된 화학물질을 폐기 및 회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사고를 예방하고 공동방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울산 화학사고 민·관공동대응협의회 대표사(SK에너지), 울산 환경기술인협회, 울

산석유화학공업단지협의회 등이 참여한다.

협약 기관은 울산 산업단지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취약시간을 포함해 인력, 장비, 방재차량, 방재물품 등을 신속히 사고 현장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필요 시에는 울산 지역 외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평상시에는 협약 기관들이 화학사고 및 테러에 대비해 합동훈련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주기적인 훈련을 통해 비상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고용노동부 폴리텍 신중년 과정 2026년 1.5만명 목표

고용노동부는 폴리텍대학이 운영하는 신중년 특화훈련과정을 올해 2500명에서 2026년까지 1만5000명 수준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폴리텍대학 신중년 특화훈련과정’은 전국 35개 캠퍼스에서 전기, 용접, 설비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제공하며, 평균 취업률은 60%에 달한다. 올해부터 950만명이 넘는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시기에 접어들고, 내년에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중장년층의 재취업과 직업 전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김문수 고용부장관은 이날 서울정수 캠퍼스를 찾아 자동화(PLC&CAD), 미래형자동차 분야 등 신중년 특화과정 훈련을 참관했다. 훈련생 및 대학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학내 식당에서 점심을 같이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김문수 장관은 “핵심 노동 인력으로 부상한 고령층이 희망 일자리로 원활히 이동하고, 나이에 상관없이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맞춤형 직업훈련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